



지역경제 견인하는 기업, 지식재산으로 적극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배터리 양극재 개발 선도기업 엘앤에프(L&F) 방문(5.21) -
 - 지역기업 지식재산 활동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논의 -
-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1.(목) 16시, 배터리 양극재* 분야 대표기업인 엘앤에프(대구 달서구)를 방문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식재산(IP) 전략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성능) 등을 결정하며, 전지 원가의 4~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엘앤에프는 대경권 주력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인 NCM에 관한 초격차 기술로 국제 기업과 3.5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근 중저가 배터리 양극재인 LFP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중국기업 외의 배터리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성SDI와 1.6조원 수준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엘앤에프는 배터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총 8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5년 한 해에만 51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이 지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식재산중점대학** 등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원이 활발한 기업이나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동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자료 뭉치(지식재산 점수판)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식재산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지역의 지식재산 전주기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권역별 거점기관

** 각 지역에 특화된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권역별 거점대학(경북대 등 9개 대학)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지역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규동 (042-481-5460)
		담당자	사무관	김민균 (042-481-5205)

